

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

차수	21차 정기
일시	18. 06. 25 18 : 00
장소	총학생회실

참석확인 (/13)

간호	경경	공대	사범	사과	약학	예술	인문	의학	자연	동연	부총	총
○	○		○	○	○	○	○		○	○	○	○

□ 보고 안건

1. 반성폭력 TFT 결과 안내/회칙 초안 작성 완료

1.1. 중점적 논의 필요 내용

- 1) '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'의 위계/수준
- 2) 제3장 징계 조항에 대한 논의 - 선거권 박탈과 학생회원 자격 박탈
- 3) '중앙운영위원회 산하 대책위원회 구성'은 회칙 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?

-동아리연합회

: 동아리의 범위나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? (성평위: 동연 회칙을 따르는 것이 옳을 것. 학과 내 소모임은 해당 소모임에 관련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 학과 회칙을 따르는 것.)

: 5조 2항 1-3, 질의서 관련 내용. 질의서의 내용을 성평등 및 인권으로 정한 이유가 있는지? (성평위: 작년의 사례를 참조한 것.)

: 대책위원회 구성을 3장 해결의 '절'로 삽입하는 것은 어떠한지? (성평위: 해당 부분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논의 요망.)

-약학대학

: 사건 접수 시 경우 단과대학 대표 이름으로 접수된다는 것인지? (성평위: 그런 의미로 쓰기는 했으나, 반드시 회장에 국한되어서 해석되는 것에는 반대. 합의에 따라 학생회장이 아닌 부학생회장 또는 단과대 내 관련 국장/국원 등에게 일임될 수 있을 것. 단위의 사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.)

: 접수된 사건에 대한 학생 자치 내의 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총학 또는 성평위로 사건을 인계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? (성평위: 해당 단과대 내부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회칙의 의의.)

-사회과학대학

: 5조 2항 1-3, 성평위 발 질문서 제출과 관련한 정확한 일시 등이 명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? (성평위: 선거 관련 내용을 확정하는 룰미팅에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.)

: 2005년의 회칙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. 전학대회에서 개정을 진행할 때 조별로 모두 진행하는 것인지? (총학생회: 기본적으로 조별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음. 그러나 지적하신 바처럼 회칙 개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. 따라서 학과 회장단까지 회칙 변경 사안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의 협조가 필수적.)

: 선거 관련 후보자 제출 서류의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선거시행세칙까지 논의되어야 할 것. (성평위: 선거시행세칙의 개정까지 고려하는 것은 어려움. 중운위 논의 진행 요망.)

: 징계 조항 중 가~마를 제외한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어떠한지? (성평위: '기타' 등의 명명으로 타 징계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 TFT내에 있었으나 중운위 논의 이후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 초안 제시

에는 포함하지 않음.

: 총학생회 대책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이 세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관련 논의가 TFT 내에서 많았다고 들었음.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? (성평위: 대책위원회가 학생회칙의 하위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지, 옳다면 어느 항목의 하위로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. 회칙의 제목 역시 가안이므로 함께 논의 되길 바람.)

-경영경제대학

: 징계 부분의 라, 마는 학과 학생회까지는 수월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, 단대 학생회에서의 진행은 어려울 수 있음. (성평위: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'해당 징계를 진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', 또는 '해당 징계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', '단서조항을 달고 추가 징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'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. 또한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제 6조 4번의 내용 참조하여 중복징계가 가능.)

-약학대학

: 해설이 지나치게 자세함. 회칙 통과를 위해 의결을 진행할 때 해설 부분까지 모두 피드백을 한꺼번에 받으면 통과가 요원. (총학생회: 전학대회 때 관련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대표자들이 기존 회칙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.) (성평위: 관련 사건이 일어났을 때, 해당 단위의 성격에 따라 회칙의 해석 또는 이행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고려. 이 때 입안 내용을 참조하여 해석할 것을 권고하고자 해설을 자세히 하려함.) (인문대학: 해설로써 입안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이라 생각.) (약학대학: 법의 경우 판례를 중심으로 이후 해석이 이루어짐. 이후 발생 가능한 내용을 전부 포괄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해설로 판례에 따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긍정적일 것.)

□ 논의 안건

1. 2018 여름 농민학생연대활동 (교육, 지원물품)

: 여름농활 참여 단위 자연과학대학, 사회과학대학, 인문대학. 기념품은 티셔츠로 진행될 것이며 도안 등은 각 단위 농활대장 측에서 공유. 마을 당 이온음료 두 세트(12개) 배분으로 진행.

2. 단위요구안 관련

: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재검토.

3. 달려

: 매년 진행 구간, 사용 불가 통보. 한강에서 행사 진행을 허가하는 세 구간 모두 이번 주 답사 진행하고 일정 확정 검토할 것.

□ 기타 안건